

데스크 시국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김미은 문화부장 겸 편집국장

“잠, 착한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다. 언젠가부터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말을 할 때면 잠시 멈춰서며 다른 수식어를 찾게 된다. 자기 실속 차리는 게 제일이고 나부터도 그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 시대, ‘착하다’는 말은 마음 좋아 손해만 보는 사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냥,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 김민섭의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창비교육)라는 책을 만났을 때 반가웠다. ‘착하고 선한 마음’과 ‘느슨한 연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와 진심이 담긴 글쓰기는 위로를 전했다. 책은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착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로 시작한다. 그는 경쟁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보다는 어떻게 계 주면 친구들이 기뻐할까 고민했다는, ‘선함에 남다른 집착을 보인’ 아이였다.

내가 김민섭 작가를 처음 접한 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란 책을 통해서다. 이후 주물공장에서 일하며 인터넷에 글을 쓰던 김동식 씨를 ‘발견’,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희색인간’ 출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그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번 책에도 소개된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였다.

2017년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그는 티켓을 취소할 상황에 처한다. ‘티켓 양도’에 대해 묻는 그에게 직원은 ‘대한민국 남성이름이름이 김민섭, 영문 이름이 스펠링과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사람’을 찾아 오면 가능하다는 답을 준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며칠 후 디자인 전공 휴학생 ‘93년생 김민섭’이 나타난다.

그의 등장에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라면 항공권이 있어도 여행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며 숙박비 30만 원을 지원했다. 1일 버스 승차권, 후쿠오카 타워 관람권,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원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무려 278명이 졸업작품 전 편당에 마음을 보냈다.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난다” “김민섭을 저 멀리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함께 응원하고 기뻐했다.

출발 당일, ‘93년생 김민섭’은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을까요?”라고 묻는다. ‘83년생 김민섭’이, 자신이 외롭고 막막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이들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이다. “그냥, 당신이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때 받았던 답을 들려준다. “저도 언젠가 ‘2003년생 김민섭’을 찾아 여행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잘 살게요.” 되돌아온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받은 후의들이 단절되지 않고 그에게 이어진 것 같아 그에게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번엔 ‘잡전하고 싶지 않았던 어른의 싸움’에 뛰어난 이야기다. 좁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 40대 남성 운전자는 그에게 30분간 육살을 퍼부었다. 저자는 그를 고소한다. 동승한 자신

의 딸과 아내의 안부를 챙기기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욕박지르고, 중재하려던 택시 운전사, 보험회사 직원, 증언하려던 젊은 청년 등 자신보다 연약한 모두에게 안하무인이었던 그에게 ‘무례함의 비용’을 물리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30대 남성이 아니라 여성 또는 노약자나 장애인이었다면 그의 태도가 어땠을까 상상하며 ‘나와, 나를 닮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복잡한 소송을 시작한다. 그의 무례함을 목인하고 나면 그는 또 누군가에게, 여전히 무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염될수록 좋은 선한 기운

책을 읽으며 내가 겪은 교통사고가 떠올랐다. 일방 통행 길에서 사고를 났던 나는 그때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을 경험했다. 한 사람은 화를 내고 겁을 주며 나를 주눅 들게 했다. 전화로 연결된 또 한 사람은 내 몸의 안부를 먼저 챙기고, 찍어 보낸 사진을 본 후에는 원래 있던 흡집인데, 괜한 걱정을 하게 했으며 오히려 미안해 했다. 그 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차와 관련된 일 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대하고 착한 사람이 됐다. 분명 선한 기운은 전염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12월이다. 지위를 이용해 군림하려 하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위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이처럼 ‘놀랍고 따뜻한 연대, 다정하고 정중한 연대’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또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 보게 되는 것이다. 저마다 힘든 시절을 견뎌 온 ‘수많은 ○○○’이 ‘수많은 ○○○’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살 만해질지도 모르겠다. /mekim@kwangju.co.kr

‘오징어 게임’의 성공과 우리의 과제

풍으로 물고 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단순한 게임을 소재로 삼아 세계적인 공감을 크게 얻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진실한 팩트임을 입증했다.

우리는 기생충, 미나리 등으로 이미 세계를 감동시킨데 이어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찬사를 받아 우리 문화 콘텐츠가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 외신들은 “한국 특유의 감정과 감수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적으로 심해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의한 상실과 절망감에 대한 돌파구를 실감나게 풀어내어 전 세계 시청자를 매료시켰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넷플릭스 콘텐츠 책임자(CCO) 테드 사란도스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거둔 주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펼쳐지는 장면마다 사투를 벌이는 액션 서스펜스와 스티리타가 흥미를 더했고, 이어지는 반전, 그리고 탈락자가 생길 때마다 상금이 올라가는 점도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둘째,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 전개되는 게임 방식과 파괴적 상상력, 색다른 촬영 세트, 게임 진행자 및 참가자들의 의복을 초록과 보라로 대비시킨 점이 시선을 끌어들였다. 셋째, 생사의 상황에서 캐릭터가 분명한 주인공들이 살아남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협동-

배제-배신하는 등 인간 심리의 다면성을 잘 묘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적 오락성과 사회적 가치를 갖춘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의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 계층적 좌절감을 제대로 반영했고, 특히 작품의 주된 메시지가 몸부림치는 한국의 청년 세대 등 어려운 계층의 삶에 주목하여 시대정신을 잘 포착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인터넷으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K-pop, K-방역, K-푸드에 이어 K-콘텐츠가 세계적 호평을 받은 것도 그 덕분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K-콘텐츠’를 ‘세계 브랜드’로 성장시킬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11월 19일에 공개된 ‘지옥’은 단 하루 만에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부문 1위에 올라 독주중이다. 이처럼 K-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는가 하면 넷플릭스와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도 세계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으로 급성장했던 우리가 이제 플랫폼과 콘텐츠로 양날개를 달고 ‘소프트 파워’ 강자의 자리에서 ‘K브랜드’로 세계를 사로잡는 기적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시대에는 출발이 늦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투자와 지원을 늘림으로써 ‘K브랜드’가 세계 콘텐츠 시장의 뉴노멀을 제시해 가는 게 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눔을 실천한 기업인 남호 이종만 선생

적 모순의 심각한 속에서도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년 시절 영특했던 이종만은 고향 서당에서 책 보는 것을 좋아해 동양 고전은 물론 문학, 철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공부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인들의 간난신고한 삶을 보면서 그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선총독부의 금광산업 정책을 파악하고 광산업에 뛰어들었다. 이종만은 함경남도 소재 사금(砂金) 광산이었던 영평광산을 매입하면서 1930년대 조선 최대의 광구 소유자로 성장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 금광업에 개가를 올린 사람은 조선 최대의 갑부였던 최창학이나 방응모, 이종만 등이었는데 남호 이종만은 이들과 달리 독특한 경영 철학의 소유자였다.

이종만은 일제의 착취와 지주들의 수탈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위해 1937년 7월 대동농촌사(大同農村社)를 설립했다. 농촌사 설립은 원래 꿈꾸어 왔던 숙원사업이었으며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육과 계몽을 위해 대동출판사를 운영하고 대동광산조합 결성과 함께 대동학원을 세웠으며, 광업기술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것들은 이종만의 이상적인 대동 콘체(기업 결합)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는데 대동농촌사의 운영에서 그 진수를 볼 수 있다.

1930년대 들어 일제의 식민지 침탈이 가속되자 농촌의 고리대와 고율 소작료 수탈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종만은 ‘작인(作人)에게 전지(田地)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간한 땅을 경작하는 빈농에게 나누어주고 소작

인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작료는 3분의 1만 내게 하고 30년의 소작 연한을 채우고 나면 수확물을 경작자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소작 농민의 자력갱생과 더불어 가난한 농촌의 자립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동농촌사가 설립된 지역의 모든 농민은 농촌사 조직원이었으며 개인 간의 토지 거래를 막고 경작자의 영구 자작 농지가 되도록 했다. 그는 대동농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촌을 건설했던 것이다.

이종만의 대동농촌사 조직은 첫째 합리적인 토지 분배를 통해 지주의 토지 독점을 막고, 둘째 소작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영구 소작권을 보장하며, 셋째 농촌의 집단화·협동화, 효과적인 농업 기술 및 영농 지도를 통해 생활 개선과 소득 증대를 이루어 ‘누구나 잘 사는’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식민 지배 체제에서 실행하기 힘들었던 평등사회 구현과 민족 독립을 이종만은 1930년대부터 조선 땅에서 몸소 실현하고자 했다.

1930년대 식자층의 인기 잡지였던 ‘삼천리’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는 이종만을 “조선의 로스 차일드요, 카네기, 몬테크리스토프 백작”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종만은 백만장자임에도 때로는 각반을 차고 탄광에 들어가 평이를 잡고,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아낌없이 농촌 계몽과 농민,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해 환해하기 기뻐했던 경제인이자 사회사업가였다. 평양 교외의 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남호 이종만 선생이 남·북한의 급변하는 사회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社說

이낙연, 이제 대의 위해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따라 광주·전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찾았다. 그러나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 전 대표와의 극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영광 방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영광 굴비 한 두름을 샀는데 구워서 맛있게 먹으며 영광군을 생각하고, 영광이 낳은 이 전 대표를 생각하겠다.” 이 대표에 대해 정중히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 정치의 거목이 전 대표를 제가 잘 모시고 유능한 민주한국을 만들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하지만 영광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반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계산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발 편의 위해 가로수 꼭 잘라 내야 했을까

광주 화정동 일대 1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무참히 잘려 나갔다. 30년 넘게 주민들에게 그늘을 주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동네를 지켜 온 가로수들이 개발 편의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화정동 일대 18개동 197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인 영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사업부지 내 인도에 있던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118그루를 잘라 냈다. 이로 인해 1987년 도로 개설과 함께 심어, 이제 높이 7~8미터까지 자란 나무들이 밀도만 남긴 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당초 재건축사업 승인 때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인도의 가로수를 이식할 계획이었다. 한데 조합 측은 지난 10월 “두 수종 모두 뿌리가 깊고 직경이 커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이팝나무로 교체하겠다”고 서구청에 협의를 요청해

이 후보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호남 지역 지지율이 50~6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90%가 넘는 몰표를 받아 당선된 바 있다. 역대 민주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봐도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대세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뤄졌다. 이 후보 역시 정채택된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 주변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등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경선 이후 틀어질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압도적인 호남 지역의 지지를 받음으로 수도권까지 바람을 일으켜 정권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터. 따라서 ‘이 전 대표가 대의를 위해 참증을 멈추고 조속히 등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가를 받아 냈다고 한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서구청이 가로수 바귀 심기 업무 처리 절차를 무시한 채 인안한 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와 업무 처리 절차에는 가로수를 제거·교체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서구청은 이번 가로수 제거는 도시정비에 따른 것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로수에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다. 가로수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탄소흡수원이자 생태도시의 지표이기도 하다. 가로수를 함부로 베어 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광주 지역 곳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가로수가 잘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 등 광주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론은 엇갈린다. 비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발상의 전환이란 청천을 듣기도 한다.

장성군의 가로수 행정은 모범 사례로 꼽힌다. 1980년대에 심은 장성군 동화면의 은행나무는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었다. 열매로 인한 악취는 물론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내고 인근 주택 담벼락까지 파손시켰다. 장성군은 전담 팀을 구성하고 면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베어 내는 대신 이식하기로 결정, 지난해 여름 총 101주의 은행나무 중이

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무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겨울이나 늦어도 3월 이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하지만 예산 편성 후에 이뤄지다 보니 3~4월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지치기 방식도 문제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에 따라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 몸통만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는 서구 화정동 일대 가로수 118그루가 잘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영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측이 인도에 있던 30년 넘은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베어 내고 대신 작은 이팝나무를 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룡강면 황미리랜드로 옮겨 심었다. 그리고 나무 주위에 수국을 심어 ‘은행나무 수국길’이란 이름의 명소를 탈바꿈시켰다.

반면 광주시 몇몇 자치구의 가로수 행정은 ‘0점’에 가깝다. 봄이든 과도한 가지치기로 몸통만 남기고 싹둑 자른다. 사업자 측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옮겨 심어야 할 나무를 베어 내기도 한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3~4월에 이뤄진다. 광주 서구도 올해 4월 중순에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기가 부적절

가로수 행정

이와 가로수를 베어 내고 대신 작은 이팝나무를 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룡강면 황미리랜드로 옮겨 심었다. 그리고 나무 주위에 수국을 심어 ‘은행나무 수국길’이란 이름의 명소를 탈바꿈시켰다. 반면 광주시 몇몇 자치구의 가로수 행정은 ‘0점’에 가깝다. 봄이든 과도한 가지치기로 몸통만 남기고 싹둑 자른다. 사업자 측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옮겨 심어야 할 나무를 베어 내기도 한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3~4월에 이뤄진다. 광주 서구도 올해 4월 중순에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기가 부적절

은펜칼럼



한국환 경영학 박사

올가을에는 전 세계를 열광시킨 우리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큰 화제거리였다. 이 드라마는 불평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벌어지는 경쟁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위축된 여건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세계 1위를 기록한 첫 대한민국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드라마는 영웅 중심의 생존 게임이 아닌 사회적 루저(실패자) 456명이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총 상금 456억 원은 참여하는 456명의 목숨 값인데, 게임 진행 중 한 사람이 탈락할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올라가며 결국 최후 한 사람이 그 돈을 독차지한다. 그러나 어떤 영웅이나 승자가 없다. 최후의 승자는 상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행복해 하지도 않는다.

이 작품 성공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 작가가 극본을 쓰고 연출했고 국내 배우를 등장인물로 내세워 세계를 열

기고



신일섭 전 호남대 교수·녹색연합 대표

돈이란 무엇인가. 모으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쓰기 위해 모으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누어 주기 위해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다. 바로 경남 울산군(현 울산광역시) 대현면 출신 사업가 남호 이종만(1886~1977)이다. 그가 활동했던 때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지배로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

남호 이종만은 일제 시기 1930년대 광산업으로 큰 돈을 벌며 기업가이자 경제인으로 성장했고 상해 임시정부 독립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 해방 후 1948년 4월 남북협상 때는 김구 선생과 함께 북행했다가 그곳에 남아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조국전선 의장 등을 역임했다. 남한 출신 기업인으로 북한에 남아 중추적으로 활동하다 일생을 마쳤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제 시기 그의 활동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라고 해서 모두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유럽의 자본주의 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했던 마르크스는 당시 계급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 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